

뛰는 물가... 서민들 장보기가 두렵다

고유가에 생필품·교통비·약값까지 '전방위' 들쭉 정부, 전기요금 인상 방침... 공공요금도 인상 압력

휘발유·경유 등 기름값의 고공행진에 이어 생활물가의 중심축을 이루는 식품·교통·일반약품 가격이 뛰면서 서민가계를 더욱 옥죄고 있다.

30일 광주·전남지역 식품업계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 파동 영향에 따른 대체수요 증가로 이변주 돼지고기값이 울퉁이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농협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변주 돼지고기값은 삼겹살(100g) 2천230원으로, 지난주 1천980원보다 12.6% 올랐다. 목살(100g)도 1천750원에서 17.7% 오른 2천60원을 기록했다.

과자·스낵·라면·아이스크림·음료·위스키 등의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다. 지난 2월 2천600원 하던 농심 신라면 120g 5개 묶음은 최근 3천원(15.4%)으로 올랐다.

롯데제과의 아이스크림류도 500원에서 700원(40%)으로 뛰었고, 위스키류는 6월초 6%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칠성음료도 15개 제품가격을 평균 7%까지, 해태음료도 13개 제품을 3~10% 밀어올렸다.

원자재값 상승에따라 소화제·변비약 등 일반 약값까지 덩달아 올랐고 있다.

삼성제약은 마시는 소화제 '까스명수' 출하가를 7월부터 10%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또 간장약 '솔기담' 등 일반약품과 모기약 '삼성킬라' 제품군 가격도 10% 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부 K모(54·북구 두암동)씨는 "자랑면에서부터 아이스크림·과자값 등 오르지 않은 게 없어 장 보기가 두렵다"면서 "납권 월급은 제자리걸음인데 생필품 가격은 자꾸 인상돼 가계부 주름이 점점 깊어간다"고 걱정했다.

여기에서 정부가 당초 방침과 달리,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전기요금별 물가 우려"도 커지면서 가계부담을 높이고 있다.

정부가 전기료 인상을 허용할 경우 그 다음 수순은 LNG 가격급등을 반영한 가스요금 인상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정부가 상반기 동결을 결정했던 철도·고속버스요금 등 중앙공공요금과 지하철·시내버스요금 등 지방공공요금도 연료비 부담으로 인상압력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지역 버스업계는 "경유가격이 휘발유보다 훨씬 빠르게 올라 가격 역전현상이 나타나면서 보통 30%선이었던 버스 운행비중 연료비 비중이 38%선까지 올라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태기자 jtee@kwangju.co.kr

경상수지 적자 환란이후 최대

올 들어 경상수지 누적 적자규모가 외환위기 이후 최대 수준으로 늘어났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감안했을 때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만 이 같은 적자규모가 계속 누적될 경우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리고 고용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4월중 국제수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15억6천만달러로 전달의 1억1천만달러보다 크게 늘어났다.

/연합뉴스



'한-아세안 전통음악 오케스트라' 공동 창설 합의

한국과 태국 등 10개 아세안 회원국 대표들은 30일 광주 신양파크 호텔에서 '제1차 한-아세안 문화협력 프로젝트' 회의를 갖고 각국의 전통 악기로 편성된 '한-아세안 전통음악 오케스트라' 공동 창설, '한 아세안 친구도시 프로젝트' 공동 추진 등을 담은 합의 의사록을 채택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개별 토지 가격 작년보다 6.8% 상승

광주지역 토지 개별 공시지가가 지난해에 비해 6.8%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1월 1일을 기준으로 광주시내 토지 36만3천914필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평균 6.77% 상승했다. 이같은 상승률은 전국 평균 10.1%에 비해서는 낮지만 광역시 평균(6.67%)에 비해서는 높은 것이다. 지난해에는 4.5% 상승에 그쳤다.

광주시내 최고지가는 동구 충장로 2가 16번지(광주우체국) 토지로 제곱미터당(㎡) 988만원이었으며, 가장 싼 지역은 광산구 사호동 산 118번지 토지 제곱미터당(㎡) 499원이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시·군·구별로 단위면적(㎡)당 가격을 조사해 5월 31일 결정·공시하며, 토지관련 과세표준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송부하고, 시와 구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6월 1일부터 시·군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 서식을 이용해 6월 30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한편 전국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은 올해 처음으로 3천조원을 넘어섰다.

/정후식기자 who@

첨단 그래픽·IT 총동원 '명품 PT' 승부 건다

■FISU 총회 하루 앞둔 U대회 유치단 필승 전략 시민 유치 열기·체육 인프라 등 집중 부각 결선 대비 스페인 비교 지지표 흡수 총력

광주시는 31일 열리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총회에서 '명품' 프레젠테이션(PT), 막판 표심공략 등 '양동작전'으로 2013하계 유니버시아드(U대회) 유치를 결정짓겠다는 복안이다.

PT를 통해 FISU 집행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이어 대회 개최지 결정 표결이 이뤄지는 직전까지도 표심에 호소하는 초읽기 득표전략을 전개한다는 것이 기본 전략이다.

또 PT 도중이나 PT 막바지에 집행위원들에게 허든 카드를 제시, 광주 유치의 당위성을 각인하는 프로젝트도 진행된다.

▲PT에 어떤 내용 담기나=광주시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광주를 방문한 FISU실사단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PT를 한층 업그레이드했다.

우선 광주의 첨단산업 인프라를 소개하는 한편, 광주 개최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첨단 컴퓨터 그래픽과 IT기술을 총동원한 PT로 집행위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특히 U대회 주경기장으로 활용될 월드컵 경기장을 중심으로 광주 지역 16개 대학 스포츠 시설, 선수촌, 호텔 등 주요 인프라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모형을 활용, 광주의 개최 여건과 역량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게 된다.

이명박 대통령도 PT에서 소개될 영상 메시지를 통해 'U대회를 정부 차원에서 전폭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밝힐 계획이다.

무엇보다 광주시는 이번 PT에서 러시아 카잔과 스페인 비고가 결코 따라 잡을 수 없는 광주시민들의 유치열정을 집중 부각하는 한편, 국제적인 스포츠 시설과 인프라를 집중소개해 유치위원들에게 광주에 대한 깊은 인상을 심어줄 계획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다. ▲마지막 득표전략=광주시와 유치위원회는 FISU총회가 열리는 31일 분초를 쫓아가며 집행위원들을 접촉하는 등 총력전을 전개하기로 했다.

총회 개막전 대회장 안팎에서 FISU집행위원들을 다각적으로 접촉하는 한편, 막판까지 부동층을 흡수하기 위해 집행위원들과의 스킨십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27명이 표결에 참여하는 1차 투표에서 3개 도시가 과반표를 차지하지 못해 2차 결선투표까지 갈 것을 감안한 득표전략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1차 투표에서 스페인 비고가 3위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스페인 지지표를 흡수하는 비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2차 표결에서 스페인 지지표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득표전을 위한 다각적인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부취셀=윤영기기자 penfoot@

시 설

U대회 광주 유치 '확정' 낭보를 기대한다

2013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 개최지 결정이 내일이 다가왔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오늘 오후 8시(한국시각 6월1일 새벽 3시) 총회를 갖고 개최지 결정투표를 실시한다. 5개월동안 기울여온 정부와 유치위, 광주시민의 유치 노력이 결실을 맺을지 주목된다.

관세는 광주와 러시아 카잔의 2과전으로 분석된다. 집행위원 27명의 1차 투표에서 광주와 카잔이 각각 10표를 얻어 스페인 비고를 제치고 2차 투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결국 비고를 지지하는 유입 집행위원들의 표심이 유치 여부를 판가름할 가능성이 높다.

막판 변수는 투표 직전 실시되는 프레젠테이션이다. 우리나라와 러시아, 스페인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FISU 집행위원들을 상대로 개최의 당위성과 환경 등을 설명하고 비전과 각종 지원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비고와 카잔에 이어 맨 나중에 프레젠테이션을 갖는다. 경쟁상대인 두 도시가 꺼낸 '깜짝 카드'를 참고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이다. 정부대표단은 부동표로 분류되는 유입 집행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비전의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광주시민의 U대회 유치 열원은 간절으로 분석된다. 집행위원 27명의 1차 투표에서 광주와 카잔이 각각 10표를 얻어 스페인 비고를 제치고 2차 투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결국 비고를 지지하는 유입 집행위원들의 표심이 유치 여부를 판가름할 가능성이 높다.

막판 변수는 투표 직전 실시되는 프레젠테이션이다. 우리나라와 러시아, 스페인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FISU 집행위원들을 상대로 개최의 당위성과 환경 등을 설명하고 비전과 각종 지원

생활물가 전방위 '들쭉' 물가부터 잡아라

전정부지로 치솟는 국제원유가의 여파로 생활물가의 중심축을 이루는 식품, 교통, 유통, 통신비 등이 전방위적으로 들쭉거리며 서민 가계가 허덕이고 있다. 당장 다음달부터 버스·항공·철도요금, LPG, 경유, 식료품값 등이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서민 가계에 멍이 들고 있는 것이다.

화물연대는 유가 인하 등을 내세워 총파업을 예고했고, 영세 자영업자는 영업용 화물차를 운행할수록 적자를 면치 못해 핸들을 놓고 있다. 농촌에서는 경유값의 급상승으로 농기계 이용을 기피하고, 어민들은 출어를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하는 실정이다. 참으로 너무나 할 것 없이 어려운 국면이다.

문제는 국내경제가 올 하반기에 더욱 어렵다는 점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30일 우리 경제가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둔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하반기 소비자 물가는 4%대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 폭등으로 서민 살림살이는 날로 괴멸해지는데 정부 대책은 너무 느슨하다. 정부는 29일에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고유가 대책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서민과 영세사업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으나 정책 파부에 외딴새는 새로운 것은 찾아 볼 수 없다. 오죽하면 '부자 내각'이라 민생현안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없다는 비아냥까지 나올까.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물가부터 잡아라 한다. 고물가로 서민경제가 마비되면 경제근간이 흔들리면서 나라 전체가 환란에 휩싸일 수 있다. 경기 진작 등 성장에 집착하기 보다는 물가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 귀국 中방문 마지막날 지진현장 방문

지난 27일부터 중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30일 중국(四川)성 대진진 참사현장을 둘러본 뒤 이날 밤 늦게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지진피해 지역인 쓰촨성 두장옌(都江堰)시를 찾았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구호물품을 싣고 중국 내륙에 도착한 우리 공군 수송기 관계자들을 격려한 뒤 곧바로 미니버스를 타고 두장옌시로 이동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중국 란민(人民)은행 건물을 둘러보고, 참담한 심정으로 폐허가 된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도시

가 완전히 비었다"면서 두장옌시 당국자에게 복구대책 등을 물었다.

이어 이재민촌에 도착해 이재민들을 일일이 격려하고 간이병원, 간이학교, 우리측 구호물품 전시장소를 일일이 둘러봤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진 피해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에게 국제전화를 걸어 "중국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중국 쓰촨성에 왔다. 와 보니 대부분 건물들이 파괴됐고 텐트나 담요도 필요한 것 같다"면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다"고 후속지원책 마련을 지시했다.

/연합뉴스

전남도, AI 피해농가에 이자 감면·상환 연장

전남도가 조류 인플루엔자(AI)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금융기관에서 융자받은 정책자금에 대해 이자감면 및 상환연장을 실시한다.

전남도는 30일 AI가 발생한 영암군 농가를 기준으로 10km 이내 나주·영암·무안 등 일부 경계지역과 경계지역 밖의 영암군에서 가족을 사육하고 있는 축산농가들이 융자받은 정책자금에 대해 이자감면 및 상환연장을 해준다고 밝혔다.

지원 기준은 ▲경계지역 내의 경우 축산발전기금과 농축산경영자금에 대해 상환기간 2년 연장 및 이자 감면 ▲경계지역 밖의

영암군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을 2년 연장한다.

이번에 혜택을 받는 농가는 1천415농가로 이자감면은 3억6천800만원이고, 상환기간 연장액은 모두 67억9천700만원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절차는 해당 금융기관이 시·군 행정기관의 협조를 얻어 대상 농가의 적격 여부 등을 확인해 추진한다"며 "해당 농가는 시·군 축산부서나 융자받은 금융기관에 확인하면 된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중두

지진 위험성이 더욱 높아졌다

"내달 제안서 제출되면 대운하 실제 나올 것"

'바다의 날' 참석 여수 온 정중환 국토부장관

제 13회 바다의 날 기념식이 30일 '2012세계 박람회' 개최지인 여수 오동도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정중환 국토해양부 장관, 장승우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장, 박준영 전남도지사, 오현섭 여수시장, 그리고 세계박람회기구(BIE) 장피엘 라몽 의장과 로세트 탈레스사 무총장, 시민 등 3천여명이 참석했다.

정 장관은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관련해 "내달말께 민간제안서가 제출되면 계획의 실체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차분하게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한 뒤 결론이 내려지지 않겠느냐"며 "(대운하와 관련해)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정)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19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F A X 222-800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마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치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기자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사회1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F A X 222-4267)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